

아랍판 '목포의 눈물' 들으며 중동 현대미술과 교감하세요

광주시립미술관, 중동현대미술특별전 '상실과 사랑의 노래' ... 오늘~7월 13일
큐레이터 샘 바더윌·틸 펠라스 기획 ... 이난영과 '이집트의 목소리' 움쿨숨 가상 만남

2014년 05월 20일(화) 00:00

가+ | 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20일부터 열리는 중동현대미술특별전을 기획한 샘 바더윌(오른쪽)과 틸 펠라스가 작품을 설명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에 새막시 마룻젓은 못자락/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설움...”

(이난영 '목포의 눈물' 중)

“나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세요, 같이 사랑의 흔적을 마세요/ 눈물이 흐르는 동안 나를 위해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의 손을 풀어주세요...”

(움쿨숨 '알-아트랄' 중)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한국과 이집트의 여가수 이난영과 움쿨숨(Oum Kulthoum)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났다. 20일부터 7월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아랍 주제 대형전시인 중동현대미술특별전 '상실과 사랑의 노래'(Songs of Loss and Songs of Love)전을 통해서다.

이번 전시는 두 여가수의 가상만남을 통해 '상실과 사랑'이라는 한국과 아랍의 공통된 정서를 현대 미술로 표현했다. 이란 출신 세계적인 예술 영화감독 시린 네샤트(Shirin Neshat), 2013 베니스 비엔날레 아랍에미레이트 대표작가 모하메드 카잠(Mohammed Kazem) 등을 비롯해 중동지역 작가 18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19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샘 바더윌(39 Sam Bardaouil-레바논)과 틸 펠라스(43 Till Fellrath-독일)를 만났다. 두사람은 지난 2012년 카타르 도하 아랍현대미술관(Mathaf) 개관전 '네페르티티와 차를(Tea with Nefertiti)'을 기획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중동에서는 '아랍의 봄' '재스민 혁명'이라고 불리는 민주주의 물결이 일고 있다. 말 그대로 아랍에 새로운 봄이 온 것이다. 광주가 어떤 도시인가? 지난 17일에도 5·18 국립묘지에 다녀왔는데 광주는 5·18 민중항쟁 등을 겪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도시 아닌가. 34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 30년이 흐른 2010년 중동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를 알아 갔으면 한다.”(샘)

샘은 파리, 런던, 뉴욕 등에서 일어나는 문화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더 깊은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번 전시에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미술만이 아니라 중동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과 작가들을 선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는 광주와 중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이난영과 '이집트의 목소리'로 불리는 국민가수 움쿨숨을 선택했다.

“지리적 거리감보다 감정적인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다. 움쿨숨은 중동 최고의 여가수다. 그녀와 동일한 삶을 살고, 또 의미가 있는 가수를 찾다가 이난영을 알게 됐다. 식민지배를 겪고, 전쟁 중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등 둘은 비슷한 삶을 살았고, 또 그 와중에도 노래를 통해 국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줬다. '목포의 눈물'을 들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한과 애환이 저절로 느껴졌다.”(틸)

두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결국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모양, 크기, 색깔은 다르지만 미술이 결국에 전하는 의미는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전시 중간 이난영과 움쿨숨 두 가수의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감동을 더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시장에 들어서면 사진 속 움쿨숨이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는 'Ruins in Space'와 이난영과 움쿨숨의 노래 영상이 교차적으로 상영되는 전시 공간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란 출신의 작가 겸 영화감독 시린 네샤트에게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안겨준 'Turbulent'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